

고등학생의 자살위험성, 자아존중감 및 영적 안녕의 관계

김 영 아* · 권 영 숙** · 박 경 민**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기는 신체와 인지가 급격히 발달하는 시기로 사회적, 도덕적 책임을 수용하고 자신의 존재 가치와 생존의 의미를 발견하며 자아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감정과 정서의 기복이 심하고 감정에 치우쳐 판단하려는 경향으로 과격하고 격렬한 행동을 표출하기 쉬운 시기이다(Jeong, 1999). 이러한 청소년기의 심리적 갈등과 정서적 요인으로 인하여 청소년의 자살행위가 일어날 수 있음이 많은 연구 결과에서 보고되고 있다(Kim, 2002).

최근 우리나라는 청소년의 자살자 수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 2002년 우리나라 청소년(10~24세)의 사망건수(3,801건) 중 자살이 17.3%(659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연령별로 나누어 보았을 때, 10~14세가 31건, 15~19세가 203건, 20~24세가 425건으로 나이에 따라 증가하였다(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2003). 청소년의 자살건수는 자살청소년의 가족들이 수치심과 불명에 때문에 주위에 알리지 않은 경우까지 감안한다면 통계에 나타난 수치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Jeong, 1999; Jeong, Yim, & Go, 2001). 특히, 최근 우리나라 고등학생 연령층인 15~19세의 경우 자살건수가 2001년 195명, 2002년

203명, 2003년 265명(National Statistics Office, 2004)으로 증가되는 추세에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은 통계를 감안한다면 자살예방을 위한 조치는 중학교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늦어도 고등학교 재학 중에는 집중적인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청소년의 경우 의도된 계획에 의한 자살보다는 조그만 문제에서 비롯된 사안을 해결하지 못하여 자살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Jang, 2004) 청소년에게 발생한 문제는 그 사안이 사소하더라도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 자살시도 또는 자살행위가 잡지기 이루어지기도 하겠지만 다수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자살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상당수의 변인들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im & Han, 1999).

선행 연구 결과에 따라 청소년의 자살위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분류해 보면 가족구조 및 부모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는 가정 관련 특성과 교우관계와 학업을 포함하는 학교관련 특성 그리고 건강관련 특성 및 개인 내적 특성이 있었으며, 이러한 특성들은 자살위험성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Bae, 1998; Ha, 2001; Jeong, 1999; Kim, 2002; Kim, 2002; Kim & Jeon, 2000; Yim, 1998; Winter, Myers, & Proud, 2002).

선행 연구 결과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성별에서는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에 비해 자살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다수 보고되고 있으나(Bae, 1998; Ha, 2001;

* 포항1대학 응급구조과 전임강사(교신저자 E-mail: yakim@pohang.ac.kr)

** 제명대학교 간호대학 부교수

Jeong, 1999; Kim, 2002; Yim, 1998), Jeong, Ann과 Kim(2003)은 차이가 없었다고 하여 일관성이 없었다.

학교계열별로도 실업계가 인문계보다 자살의도가 높다고 한 보고(Kang, Song, Cho, & Kang, 2004)가 있는 반면, 일반인문계, 농업계, 상업계, 남녀공학 인문계 순으로 자살충동이 높게 나타났다는 보고도 있어(Kim, 2002) 일관성이 없었다.

학교관련 특성 중 청소년의 자살위험성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은 학교성적, 친구, 이성친구, 교사와의 관계 등이 있었으며,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자살생각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ae, 1998; Kim, 2002). 청소년은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를 또래와의 관계를 통해 해소하려는 경향이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Lee, 2003), 또래 관계는 청소년의 자살위험성의 완충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가정은 청소년의 자살행동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변인 중 가장 많이 논의되는 요인이다(Jeong et al., 2001). 가족의 소득이 높을수록(Kim, 2002), 부모와의 친애도가 높을수록, 가정이 화목할수록 자살충동이 낮았고, 부모가 권위적일수록, 체벌정도가 강할수록 높게 나타났으며(Yim, 1998), 부모와의 대화가 잘 안된다고 한 고등학생 군이 잘된다고 한 군보다 자살위험성이 높았다(Kang et al., 2004).

건강관련 특성 중 청소년의 자살위험성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은 음주 및 흡연 여부, 상담치료 경험, 신체질환 및 정신심리상태가 있었다. 청소년은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발달적 특징으로서의 외모, 체형 변화, 학업, 친구관계 및 가족관계 등에 대한 다양한 스트레스를 처리하는 방법이 미숙하여 스트레스로 인해 개인의 안녕을 위협받거나 부적응 상태가 유발될 수 있다(Lee, 2003).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일상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대처하는(Young, Rathge, Mullis, & Mullis, 1990) 반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은 자기 노력의 결과에 대해 부정적으로 기대하거나 자신의 미래의 모습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Kim, 2002), 위기에 취약하므로 낮은 자아존중감은 자살시도의 강한 예측인자가 된다(Lee, 2003).

또한, 영적 안녕은 인간의 건강을 구성하는 요소로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차원을 연합시키는 개념으로서(Lee, 2002) 생동감과 목적이 있고 충만감을 느끼는 상

태로 설명된다. 영적 안녕이 높은 청소년은 자신의 생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와 생명에 대한 존경, 내적인 조화와 평화, 감사와 만족, 타인과의 지지적인 관계 등(Yoo, 2002) 긍정적인 자화상 형성으로 위기와 고통에 대해 긍정적인 해석을 하는 높은 정신건강을 나타낸다(Lee, 2002). 따라서 영적 안녕 역시 청소년의 내적 상태를 반영하므로 자살위험성과의 관련성을 파악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의 자살위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많고 다양하였으며 어떤 요인들은 다른 요인들의 의미에 포함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충실한 청소년 자살 예방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려면 이러한 요인들을 재정리하여 고등학생의 자살위험성의 정도를 파악하고 그 관계를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제 특성을 비롯하여 자살위험성, 자아존중감 및 영적 안녕의 정도를 파악하여 그 관계를 확인하여 자살 예방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생의 자살위험성에 영향을 주는 제 특성들을 파악하고 자아존중감과 영적 안녕과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제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자살위험성, 자아존중감 및 영적 안녕의 정도를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자살위험성의 정도를 파악한다. 넷째, 대상자의 자살위험성과 자아존중감, 영적 안녕의 관계를 파악한다.

3. 용어의 정의

1) 자살위험성

자살위험성은 자살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Cull & Gill, 1988), 본 연구에서는 Go, Kim과 Lee(2000)가 국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발한 자살위험성 예측척도(Suicide Probability Scale)로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긍정적 견해로서 (Jeong, 2004), 일반적으로 자신이 능력이 있고, 중요하며, 가치있는 존재라고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Yang, 2003), 본 연구에서는 Coopersmith(1967)의 자아존중감 검사지(Self-Esteem Inventory)를 Choi와 Jeon(1993)이 수정 보완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3) 영적 안녕

영적 안녕이란 총체적으로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삶의 원리로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절대자(신, 최고의 가치), 자신, 이웃, 환경과의 관계에서 조화된 삶을 영위하여 사람의 내적 자원이 총체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말한다(Burkhardt, 1989). 본 연구에서는 Paloutzian과 Ellison(1982)이 개발하고 Choi(1991)이 번역한 영적 안녕척도(Spiritual Well-Being Scale)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인문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 2학년 남녀 고등학생 1,176명이었다.

2.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은 2004년 9월 13일부터 2004년 9월 25일까지였으며 보건교사가 학생들에게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부하고 설명한 후 학생이 자가 기입하게 한 후 회수하였다.

3. 연구도구

설문지는 일반적 특성, 학교, 가정, 건강 관련 특성, 내적 상태 특성에 관한 문항과 자살위험성 예측 척도, 자아존중감, 영적 안녕 도구로 구성되었다.

자살위험성 예측 척도는 Go 등(2000)이 국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31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거의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대체로 그렇다' 4점까지로 이루어진 Likert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위험이 높게 예측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Cronbach's α 는 0.90이었다.

자아존중감은 Coopersmith(1967)에 의해 개발된 자아존중감 검사지(Self-Esteem Inventory)를 Choi 등(1993)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3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로 이루어진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Cronbach's α 는 0.88이었다.

영적 안녕은 Paloutzian과 Ellison(1982)이 개발한 영적 안녕척도(Spiritual Well-Being Scale)를 Choi(1991)가 번역하고 Yoo(2002)가 4점 척도로 수정 보완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확실히 그렇다' 4점까지로 이루어진 Likert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영적 안녕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Cronbach's α 는 0.87이었다.

4.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dows 11.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자살위험성의 차이는 t-test와 one-way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검증은 Scheffé 검증을 이용하였다. 자살위험성과 자아존중감, 영적안녕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특성

대상자의 특성은 일반적, 학교, 가정, 건강관련 특성 및 내적상태 특성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Table 1).

대상자의 성별 분포는 남자 46.7%, 여자 53.3%이며, 인문계열 학생이 72.1%였다. 학년별로는 2학년이 51.5%였다. 종교는 무교 41.7%, 불교 26.1%, 기독교 16.2%, 천주교 10.6%, 기타 5.5% 순이었다.

대상자의 학교관련 특성으로 단짝 친구가 있다는 응답이 86.6%이었고 친한 친구 수는 5명에서 9명이 44.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현재 친한 친구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51.6%가 좋다고 응답하였고, 현재 이성친구의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1,176)

characteristic	category	n	%
General Characteristics			
sex	male	549	46.7
	female	627	53.3
school	academic high	848	72.1
	technical high	328	27.9
grade	first	570	48.5
	second	606	51.5
religion	protestant	190	16.2
	catholic	124	10.6
	buddism	306	26.1
	others	65	5.5
	no religion	489	41.6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school life			
have the best friend*	yes	1016	86.6
	no	157	13.4
No. close friend*	0	11	1.0
	1-4	327	29.7
	5-9	487	44.3
	>9	275	25.0
current relationship with close friend	very good	545	46.7
	good	601	51.6
present friend (different sex)*	have	193	16.4
	don't have	630	53.6
	haven't had	352	30.0
experience of school violence*	yes	85	7.2
	no	1089	92.8
teacher respected*	yes	711	60.5
	no	464	39.5
grade*	high	121	10.3
	moderate	733	62.4
	low	320	27.3
Characteristics of family background of respondents			
financial condition*	high	91	7.7
	moderate	931	79.3
	low	153	13.0
marriage status of parents*	marriage	1051	89.4
	divorce(living separately)	74	6.2
	remarriage	25	2.1
	other	25	2.1
religion of parents*	protestant	145	12.3
	catholic	132	11.2
	buddism	606	51.6
	others	37	3.2
	no religion	255	21.7
level of father's education*	primary	45	3.8
	middle	103	8.8
	high	535	45.5
	diploma	61	5.2
	above university	431	36.7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continued)

characteristic	category	n	%
Characteristics of family background of respondents			
level of mother's education*	primary	58	4.9
	middle	155	13.2
	high	666	56.7
	diploma	46	3.9
home atmospher	above university	250	21.3
	very hamonious	274	23.3
	hamonious	490	41.7
communication with father	moderate	353	30.0
	discord	59	5.0
	very good	177	15.1
communication with mother	good	532	45.2
	not good	386	32.8
	not at all	81	6.9
communication with mother	very good	451	38.4
	good	560	47.6
	not good	133	11.3
	not at all	32	2.7
Characteristics of health			
smoking	no	1041	88.5
	sometimes	72	6.1
	habitually	63	5.4
alcohol	no	564	48.0
	sometimes	571	48.6
	habitually	41	3.4
experience of counselling treatment	yes	74	6.3
	no	1102	93.7
physical illness	yes	174	14.8
	no	1002	85.2
Characteristics of internalized state			
experience of thinking about suicide	yes	636	54.1
	no	540	45.9
experience of attempting suicide	yes	66	5.6
	no	1110	94.4

* except missing data

유무는 53.6%가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학원폭력은 당한 경험은 없는 경우가 92.8%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대상자의 60.5%가 존경하는 교사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학교성적은 중 62.4%, 하 27.3%, 상 10.3% 순으로 응답하였다.

대상자의 가정관련 특성으로 가정의 경제상태는 '중'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79.3%로 가장 많았고, 부모의 결혼 상태는 결혼이 89.4%로 나타났다. 부모의 종교는 불교가 51.6%로 가장 많았으며, 아버지의 학력은 고졸이

45.5%, 어머니의 학력 역시 고졸이 56.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정의 분위기는 화목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41.7%로 가장 많았고, 아버지와 대화가 잘된다고 응답한 경우는 45.2%였으며 어머니와의 대화가 잘된다고 응답한 경우는 47.6%였다.

대상자의 건강관련 특성으로 흡연 유무에서 '전혀 안 한다.' 88.5%, 음주 유무는 '전혀 안 한다.' 48.0%였다. 상담치료를 받은 경험의 유무는 '경험 없다.' 93.7%였고, 신체질환의 여부는 85.2%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대상자의 내적상태 특성 중 자살에 대해 생각해 본 경험이 있는 경우는 54.1%로 과반수였으며, 자살을 시도해 본 경험이 있는 경우는 5.6%였다.

2. 대상자의 자살위험성, 자아존중감 및 영적 안녕의 정도

자살위험성 정도의 평균평점은 2.00이며, 부정적 자기평가가 2.39점으로 하위척도 중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절망감 2.08, 적대감 1.60, 자살생각 1.46 순이었다.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정도는 3.09이며, 하위변인으로 총체적 자아존중감은 3.30, 사회적 자아존중감 3.28,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 3.20이었으며,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이 2.62로 가장 낮았다.

대상자의 영적 안녕 정도는 2.43이며, 하위변인으로 실존적 안녕이 2.73으로 종교적 안녕 2.13보다 높았다 <Table 2>.

3.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자살위험성의 정도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위험성의 차이

<Table 2> Degree of suicidal risk, self esteem, and spiritual well-being of the respondents (N=1,176)

characteristic	M(SD)
suicidal risk*	2.00(0.42)
negative self evaluation	2.39(0.54)
hopelessness	2.08(0.52)
antagonism	1.60(0.49)
suicidal thinking	1.46(0.57)
self esteem**	3.09(0.43)
general self esteem	3.30(0.59)
social self esteem	3.28(0.54)
self esteem at the school	3.20(0.72)
self esteem at the family	2.62(0.53)
spiritual well-being*	2.43(0.48)
existential spiritual well-being	2.73(0.50)
religious spiritual well-being	2.13(0.67)

* Likert 4 grades scale ** Likert 5 grades scale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항목은 학교계열로 실업계 고등학생의 자살위험성은 65.21점으로 인문계 고등학생의 61.10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4.83, p=0.000$)<Table 3>.

2) 대상자의 학교관련 특성에 따른 자살위험성의 차이
자살위험성은 단짝친구가 없는 경우(67.80)는 있는 경우(61.36)보다 높았으며($t=-5.17, p=0.000$), 친한 친구 수($F=8.30, p=0.000$)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현재 친한 친구들과의 관계는 사후검증 결과 '좋지 않다.'(76.26), '좋다.'(64.07)가 '매우 좋다.'(59.47)보다 자살위험성이 높았고, '좋지 않다.'(76.26)가 '좋다.'(64.07)보다 높았다($F=22.99, p=0.000$). 학교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69.34)는

<Table 3> Degree of suicidal risk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N=1,176)

characteristic	category	M(SD)	t or F	p
sex	male	61.97(13.24)	-0.66	0.506
	female	62.49(13.14)		
school	academic high	61.10(13.36)	-4.83	0.000
	technical high	65.21(12.27)		
grade	first	62.80(12.78)	1.38	0.166
	second	61.73(13.55)		
religion	protestant	59.97(13.33)	2.20	0.066
	catholic	62.26(12.85)		
	buddism	62.60(13.50)		
	others	64.89(12.57)		
	no religion	62.59(13.04)		

〈Table 4〉 Degree of suicidal risk by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school life (N=1,176)

characteristic	category	M(SD)	t or F	p	Scheffé
have the best friend	yes	61.36(12.73)	-5.17	0.000	
	no	67.80(14.76)			
No. close friend	0 ^U	75.63(16.81)	8.30	0.000	①,②>③,④
	1-4 ^W	64.47(13.87)			
	5-9 ^W	61.31(12.45)			
	≥9 ^W	61.26(13.03)			
current relationship with close friend	very good ^U	59.47(12.76)	30.36	0.000	②,③>① ③>②
	good ^W	64.07(12.81)			
	not good ^W	76.26(12.03)			
present friend (different sex)	have	62.27(12.58)	0.53	0.586	
	don't have	61.91(13.15)			
	haven't had	62.82(13.60)			
experience of school violence	yes	69.34(14.49)	4.70	0.000	
	no	61.71(12.92)			
teacher respected	yes	60.79(13.10)	-4.82	0.000	
	no	64.54(12.92)			
grade	high ^U	59.00(13.31)	26.73	0.000	③>①,②
	moderate ^W	60.88(12.86)			
	low ^W	66.67(12.84)			

없는 경우(61.71)보다 자살위험성이 높았다($t=4.70$, $p=0.000$). 존경하는 교사는 없는 경우(64.54)가 있는 경우(60.79)보다 자살위험성이 높았다($t=-4.82$, $p=0.000$). 학교성적은 하위(66.67)인 경우 상(59.00), 중(60.88)보다 자살위험성이 높았다($F=26.73$, $p=0.000$)〈Table 4〉.

3) 대상자의 가정관련 특성에 따른 자살위험성의 차이 가정의 경제상태에 따른 자살위험성은 사후검증 결과 중(61.45), 하(70.21)가 상(56.96)보다 높았고, 하(70.21)가 중(61.45)보다 높게 나타났다($F=39.28$, $p=0.000$). 부모의 결혼상태에 따른 자살위험성은 기타

(72.32)와 이혼 및 별거(69.95)가 결혼(61.44)보다 높았다($F=15.11$, $p=0.000$). 아버지 학력($F=3.19$, $p=0.013$)에 따른 자살위험성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어머니 학력에 따른 자살위험성은 중졸(64.47)과 고졸(62.69)이 대졸이상(59.66)보다 높았다($F=3.74$, $p=0.005$). 부모와의 대화에 따른 자살위험성은 아버지의 경우, '잘됨'(60.06), '잘 안됨'(65.83), '전혀 안됨'(71.60)이 '매우 잘됨'(56.74)보다 높았고, '잘 안됨'(65.83), '전혀 안됨'(71.60)이 '잘됨'(60.06)보다 높았으며, '전혀 안됨'(71.60)이 '잘 안됨'(65.83)보다 높게 나타났다($F=42.24$, $p=0.000$). 어머니의 경우, 대화가 '잘됨'(62.96), '잘 안됨'(71.19), '전혀 안됨'(73.37)

〈Table 5〉 Degree of suicidal risk by family background of the respondents (N=1,176)

characteristic	category	M(SD)	t or F	p	Scheffé
financial condition	high ^U	56.96(13.91)	39.28	0.000	②,③>① ③>②
	moderate ^W	61.45(12.49)			
	low ^W	70.21(13.79)			
marriage status of parents	marriage ^U	61.44(12.95)	15.11	0.000	②,④>①
	divorce(living separately) ^W	69.95(12.96)			
	remarriage ^W	62.92(12.35)			
	other ^W	72.32(13.74)			
religion of parents*	protestant	59.47(13.15)	2.32	0.054	
	buddism	63.03(13.70)			
	catholic	62.18(13.20)			
	others	61.76(11.95)			
	no religion	63.56(11.89)			

<Table 5> Degree of suicidal risk by family background of the respondents(continued) (N=1,176)

characteristic	category	M(SD)	t or F	p	Scheffé
level of father's education	primary	63.95(12.40)	3.19	0.013	
	middle	65.15(11.80)			
	high	62.86(12.93)			
	diploma	60.13(11.50)			
	above university	60.94(13.95)			
level of mother's education	primary ¹⁾	62.67(11.34)	3.74	0.005	②,③)⑤
	middle ²⁾	64.47(11.75)			
	high ³⁾	62.69(13.42)			
	diploma ⁴⁾	62.08(13.31)			
	above university ⁵⁾	59.66(13.48)			
home atmosphere	very harmonious ¹⁾	56.03(12.11)	75.70	0.000	②,③,④)① ③,④)② ④)③
	harmonious ²⁾	60.38(11.18)			
	moderate ³⁾	67.28(12.95)			
	discord ⁴⁾	76.49(13.74)			
communication with father	very good ¹⁾	56.74(13.02)	42.24	0.000	②,③,④)① ③,④)② ④)③
	good ²⁾	60.06(12.10)			
	not good ³⁾	65.83(12.46)			
	not at all ⁴⁾	71.60(14.56)			
communication with mother	very good ¹⁾	57.14(12.37)	50.14	0.000	②,③,④)① ③,④)②
	good ²⁾	62.96(12.19)			
	not good ³⁾	71.19(12.79)			
	not at all ⁴⁾	73.37(15.56)			

이 매우 잘됨(57.14)보다 자살위험성이 높았고, 잘 안됨(71.19), 전혀 안됨(73.37)이 잘됨(62.96)보다 높게 나타났다(F=50.14, p=0.000)<Table 5>.

4) 대상자의 건강관련 특성에 따른 자살위험성의 차이
사후검증 결과, 흡연에 따른 자살위험성은 '가끔 한다.'(66.09), '습관적으로 한다.'(67.80)가 '전혀 안한다.'(61.64)보다 높았고(F=9.88, p=0.000), 음주는 '가끔 한다.'(63.75), '습관적으로 한다.'(66.90)가 '전혀 안한다.'(60.38)보다 높았다(F=12.12, p=0.000). 상담치료를 받은 경험에 따른 자살위험성은 경험이 '있다.'

(67.58)가 '없다.'(61.89)보다 높게 나타났고(t=3.04, p=0.003), 신체질환 여부도 '있다.'(65.81)가 '없다.'(61.63)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3.69, p=0.000)<Table 6>.

5) 대상자의 내적상태에 따른 자살위험성의 차이
자살에 대해 생각해 본 경험이 있는 경우(66.90)가 없는 경우(56.77)보다 자살위험성이 높았고(t=14.50, p=0.000), 자살시도 경험 역시 경험이 있는 경우(74.56)가 없는 경우(61.51)보다 높았다(t=6.23, p=0.000)<Table 7>.

<Table 6> Degree of suicidal risk by the respondents' health (N=1,176)

characteristic	category	M(SD)	t or F	p	Scheffé
smoking	no ¹⁾	61.64(12.94)	9.88	0.000	②,③)①
	sometimes ²⁾	66.09(14.25)			
	habitually ³⁾	67.80(14.12)			
alcohol	no ¹⁾	60.38(11.94)	12.12	0.000	②,③)①
	sometimes ²⁾	63.75(13.81)			
	habitually ³⁾	66.90(16.70)			
experience of counselling treatment	yes	67.58(15.72)	3.04	0.003	
	no	61.89(12.93)			
physical illness	yes	65.81(13.91)	3.69	0.000	
	no	61.63(12.96)			

〈Table 7〉 Degree of suicidal risk by internalized state

(N=1,176)

characteristic	category	M(SD)	t or F	p
experience of thinking about suicide	yes	66.90(13.54)	14.50	0.000
	no	56.77(10.37)		
experience of attempting suicide	yes	74.56(16.70)	6.23	0.000
	no	61.51(12.58)		

4. 대상자의 자살위험성과 자아존중감, 영적안녕의 관계

대상자의 자살위험성은 자아존중감($r=-0.719$, $p=0.000$), 영적 안녕($r=-0.547$, $p=0.000$)과 유의한 역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자살위험성이 높은 고등학생일수록 자아존중감과 영적 안녕은 낮았다. 자아존중감은 영적 안녕($r=0.532$, $p=0.000$)과 유의한 순 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8).

〈Table 8〉 Correlation among the suicidal risk, self esteem, and spiritual well-being (N=1,176)

Variable	suicidal risk	self esteem
suicidal risk		
self esteem	-0.719*	
spiritual well-being	-0.547*	0.532*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IV. 논 의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제 특성을 비롯하여 자살위험성, 자아존중감 및 영적 안녕의 정도를 파악하여 그 관계를 확인하여 자살 예방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으며 고등학생의 특성을 일반, 학교, 가정, 건강 관련, 및 내적 상태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자살에 대해 생각해 본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54.1%로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자 중 66명(5.6%)이 자살시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청소년의 성격특성과 가정 역동성 환경의 자살시도간의 관계를 파악한 Kim(2002)의 연구에서 일반청소년의 자살시도율 5.1%로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결과였다. 자살시도 경험이 있는 대상자 수는 매우 낮은 비율로 나타났으나 과거 자살시도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재시도할 위험성이 높고(Kim et al., 1999), 자살시도 경험을 가진 학생은 과거 자살시도 경험이 없는 학생보다 자살시도 가능성이

18배나 높다(Lewinsohn, Rohde, & Seeley, 1994)는 보고들을 고려할 때 자살시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들에게는 심층적이고 다각적 접근을 통해 재시도에 의한 자살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학교계열에 따라 자살위험성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실업계열 고등학생이 인문계열 고등학생에 비하여 자살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Kim(2002)은 인문계, 농고, 상고 순으로 높은 자살충동을 느낀다는 상반된 보고를 하였다. 한국 교육제도에 있어서 인문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는 학교의 교육과정 면에서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특성 면에서도 매우 이질적이므로(Jeong, 1999), 학생 특성을 고려하여 자살을 실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고등학생의 자살위험성에 학교계열별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구체적인 요인을 밝히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성별에 따른 자살위험성은 여학생과 남학생이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여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Bae(1998),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Yim(1998), Jeon과 Lee(2000)의 연구에서는 여학생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으나, 여학생의 자살 위험성이 남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선행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단짝친구가 있는 경우와 친한 친구수가 많은 경우에 자살위험성이 낮았고, 친한 친구들과의 관계가 매우 좋은 경우 자살위험성이 낮았으며, 이성친구의 유무는 자살위험성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Lee(2003)의 연구에서도 친구수와 자살위험성은 역상관관계가 있고 자살위험성과 자아존중감에 있어서 이성친구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청소년 시기는 부모와의 관계가 약화되고 또래의 역할이 큰 시기이며 소수와 상호작용하며 친밀하고 지속적인 친구관계를 유지하려는 성향이 강하며(Kim, 2002), 또래와의 관계에 어떻게 적응하느냐에 따라 청소년의 가치와 의미에 영향력을 갖는다고 하였다(Jeon et al., 2000). 따라서 단

짝친구와 친한 친구의 존재 및 그 관계가 자살위험성에 차이를 보인 점을 통해 교육과 상담을 포함한 자살 예방 프로그램 개발 시 또래 집단의 활용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학원폭력을 당한 경험의 유무에 따라서는 경험이 있었던 대상자가 자살위험성이 높았다. 이는 Kang 등(2004)이 학교폭력의 피해경험이 있는 고등학생이 없는 고등학생보다 자살의도 정도가 높았다는 연구결과와 같았으며, 청소년 자살의 촉발사건으로 가장 많이 보도된 사건이 학교폭력이었다는 Kim 등(2000)의 연구 결과와도 유사하였다. 청소년에게 있어서 학원폭력은 대인관계 부적응 및 학교생활 부적응의 원인이 되고 이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가 자살위험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학원폭력을 해결하는 것은 청소년의 자살 예방의 차원에서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또한 학교성적이 '중', '하'인 경우가 '상'인 경우에 비해 자살위험성이 높게 나타났다. 인문고, 상업고, 농업고의 남녀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2002)의 연구에서 성적이 낮을수록 높은 자살충동을 느낀다고 하였고, 남·여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Bae(1998)의 연구에서도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자살생각을 많이 한다고 하여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학업성적을 학생평가의 기준으로 삼고 성적에 따라 고등학생의 미래를 결정하려는 성향이 강한 우리나라 교육현실을 살펴 보았을 때, 학생들의 낮은 학업성적은 학생의 자존감을 저하시키고 우울을 높임으로써 자살위험성을 높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자살위험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관련 특성은 가정의 경제상태, 부모의 결혼상태, 어머니의 학력, 가정 분위기와 아버지와의 대화, 어머니와의 대화였다. 그리고 자아존중감의 4개의 하위척도 중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이 가장 낮았다. 이는 청소년의 자살위험성의 요인을 밝히고자 한 많은 연구결과(Kim, 2002; Yim, 1998; Jeon et al., 2000; Jeong et al., 2003; Ha, 2001)와 유사하였다. 가정은 최소단위의 사회로서 청소년의 개인적, 생리적 욕구 충족의 기본이며, 청소년의 사회화를 촉진시키고 적응능력을 보완해주는 기능을 수행한다(Yim, 1998). 청소년은 가족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적절한 발달 과업을 수행하지 못할 때 자살이라는 극단적 결과를 낳게 된다(Jeon et al., 2000). 따라서 자살위험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특성을 수정함으로써 고등학생의 자살위험성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한데, 이 특성들 중 가정의 경제상태, 부모의 결혼상태

및 어머니의 학력은 개인의 사생활로 외부적인 노력에 의한 개입이 힘든 요인이다. 반면 화목한 가정 분위기와 부모와의 대화는 개선의지와 노력에 의해 변경 가능한 요인이다. 따라서 가정배경 요인과 관련해 높은 자살위험성을 보인 대상자에게는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지지 프로그램과 상담 등을 통해 자살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흡연, 음주, 상담치료 경험, 신체 질환의 유무에 따라 자살위험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음주여부가 자살충동의 위험요인이라고 밝힌 Jeong 등(2003)의 연구와 신체질환이 청소년을 자살로 치닫게 하는 요인이라고 밝힌 Ha(2001)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이다. 청소년의 흡연과 음주는 많은 연구에서 청소년 비행행위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는 자살과 함께 청소년의 비사회적 문제행동으로 규정되고 있다(Choi, 2002). 고등학생의 흡연과 음주가 스트레스 대처 수단으로 이용된다고 할 때 흡연과 음주를 하는 고등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사회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스트레스 대처 방식이 낮다. 따라서 청소년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 중의 한 구성요소로서 청소년 스트레스 대처법에 대한 보건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자살위험성은 자아존중감, 영적 안녕과 역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과 영적 안녕은 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문, 상업, 농업 계열별 남, 여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2002)의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자살충동을 느끼게 된다는 보고와, 중고등학생과 청소년 센터에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Lee(2003)의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은 자살생각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보고는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Bolognini, Plancherel, Bettschart와 Halfon(1996)의 고찰에 의하면 Cooley는 자아존중감은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이 가진 견해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즉, 타인에게 존중을 받는 사람은 높은 자아존중감을 갖게 되고 존중을 받은 경험이 거의 없으면 낮은 자아존중감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 고등학생에게 있어서 의미가 큰 타인은 부모, 또래친구이며 이들의 평가는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의 형성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청소년의 자살 예방 프로그램에는 부모와 친구를 포함하는 자아존중감 향상 전략이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Kang 등(2004)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영적안녕과 자살의도가 역상관관계라고 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는 영적 안녕이 높을수록 정신건강이 높다고 보고한 Lee(2002)의 연구 결과에서도 간접적으로 영적 안녕과 자살위험성과의 관계를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영적 안녕이 높으면 자아존중감도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고등학생의 실존적 영적안녕과 함께 종교적 영적안녕을 향상시키는 전략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제 특성을 비롯하여 자살위험성, 자아존중감 및 영적 안녕의 정도를 파악하고 그 관계를 확인하여 자살 예방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된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은 대구광역시 소재하는 인문계 고등학교 6개교와 실업계 고등학교 2개교의 남녀 고등학생 1,176명이었다. 연구 도구는 Go 등(2000)이 개발한 자살위험성 척도와, Coopersmith가 개발하고 Choi 등(1993)이 수정보완한 자아존중감 도구, Paloutzian과 Ellison(1982)이 개발하고 Yoo(2002)가 수정보완한 영적안녕 도구를 사용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04년 9월 13일부터 2004년 9월 25일까지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dows 11.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서술통계, t-test, one-way ANOVA, Scheffé 검정,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자살위험성 정도는 평균평점 2.00점이며,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정도는 3.09이고, 영적 안녕 정도는 2.43으로 나타났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자살위험성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요인은 학교계열이었다.
3. 대상자의 학교관련 특성 중 자살위험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요인은 단짝친구, 친한 친구수, 현재 친한 친구들과의 관계, 학원폭력을 당한 경험, 존경하는 교사의 유무, 학교성적이었다.
4. 대상자의 가정관련 특성 중 자살위험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요인은 가정의 경제 상태, 부모의 결혼 상태, 아버지 학력, 어머니 학력, 가정 분위기, 아버지와 대화, 어머니와의 대화이었다.
5. 대상자의 건강관련 특성 중 자살위험성에 유의한 차

이가 있는 요인은 흡연, 음주, 상담치료 받은 경험, 신체질환 여부이었다.

6. 대상자의 내적상태 특성 중 자살위험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요인은 자살에 대해 생각해 본 경험, 자살 시도 경험이었다.
7. 대상자의 자살위험성은 자아존중감, 영적 안녕과 역상관관계로 나타났고, 자아존중감과 영적 안녕은 순상관관계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고등학생의 자살위험성은 고등학생의 제 특성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아존중감, 영적 안녕과 역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향후 청소년 자살 예방 프로그램 개발에 본 연구 결과를 활용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자살시도 경험이 있는 대상자와 자살위험성이 높은 대상자들의 자살관련 요인을 심도있게 파악하기 위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2.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자살위험성은 가정 분위기가 화목하고 부모와의 대화가 잘되는 경우 낮게 나타났으므로 자살위험성이 높은 청소년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참여하는 상담 및 보건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3. 본 연구에서 자살위험성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자아존중감과 영적 안녕 향상에 중점을 둔 자살 예방하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References

- Bae, S. K. (1998). *Psychological factors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affected Suicide ideation*. Unpublished master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 Bolognini, M., Plancherel, B., Bettchart, W., & Halfon O. (1996). Self-esteem and mental health in early adolescence: development and gender differences. *J. adoles*, 19, 233-245.
- Burkhardt, M. A. (1989). Spirituality: Analysis of the concept. *Holist Nurs Pract*, 3(3), 69-77.

- Choi, B. G., & Jeon, K. Y. (1993).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self-esteem assessment(I). *J Korean Home Econ*, 31(2), 41-53.
- Choi, S. S. (1991). *A Correlational study on spiritual wellness, hope and perceived health status of urban adul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 Choi, B. M. (2002). *Prevention of adolescents' suicide*. Seoul: Hong Ik Jae.
- Cull, G. J., & Gill, S. W. (1988). *Suicide probability scale manual*. Los Angeles: Western Psychological Services.
- Go, H. J., Kim, D. J., & Lee, H. P. (2000). A validation study of the suicide probability scale for adolescents(SPS-A). *J Korean Neuropsychiatry*, 39(4), 680-690.
- Lee, H. I. (2002). Correlation between spiritual well-being and mental health of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Nurs*, 32(1), 7-15.
- Lee, K. J. (2003).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high risk group in adolescent suicide*. Unpublished master thesis, Catholic University, Seoul.
- Lee, S. (2003). A Study of relationship on suicidal risk, self-esteem and TA ego function of high school girls. *J Korean Acad Psychiat Ment Health Nurs*, 12(2), 155-163.
- Ha, Y. H. (2001). *A Study on actual condition of junior high school students' suicidal ideation*. Unpublished master thesis, Ewha Univesity, Seoul.
- Jang, H. S. (2004). *Psychology of adolescence*. Seoul: Pak Young Sa.
- Jeon, Y. J., & Lee, S. H. (2000). Analysis of variables related to adolescent's suicidal ideation. *J Korea Youth Research Assoc*, 7(1), 221-246.
- Jeong, C. S. (1999). *Study on the adolescent's suicidal risk, stress and coping*. Unpublished master thesis, Dankuk University, Seoul.
- Jeong, C. S., Yim, S. B., & Go, H. J. (2001). A Study on the adolescent's suicidal risk. *J Korean Acad Psychiat Ment Health Nurs*, 10(4), 521-532.
- Jeong, H. K., Ann, O. H., & Kim, K. H. (2003). Predicting factors on youth suicide impulse. *J Korea Youth Research Assoc*, 10(2), 107-126.
- Jeong, S. J. (1999). A study on the difference of self-concept between the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and the general high school students. *J Educ Psychol*, 13(3), 307-329.
- Jeong, O. B. (2004). *Developmental psychology*. Seoul: Hak-JiSa.
- Kang, E. S., Song Y. S., Cho, H. S., & Kang, S. N. (2004). Relationship of suicidal ideation, depression, spiritual well-being of adolescence. *J Korean Acad Psychiat Ment Health Nurs*, 13(2), 190-199.
- Kim, E. J. (2002). *The Study on sociopsychological factors affecting suicide impulse of juveniles*. Unpublished master thesis, Chungju University, Chungju.
- Kim, H. S. (2002). Correlation between personality, family dynamic environment and suicidal attempt among Korean adolescents population. *J Korean Acad Nurs*, 32(2), 231-242.
- Kim, K. H., & Jyon, M. H. (2000). Study on the teenage suicide. *J Korean Child Welfare*, 9, 127-152.
- Kim, M. R. (2002). *Friendships and self-esteem in adolescen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Jeonnam University, Gwangju.
- Kim, S. U., & Han, J. K. (1999). *We can prevent from adolescents' suicide*. Seoul: Yehsol.
- Lee, H. I. (2002). Correlation between spiritual well-being and mental health of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Nurs*, 32(1), 7-15.
- Lee, K. J. (2003).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high risk group in adolescent suicide*. Unpublished master thesis, Catholic University,

Seoul.

- Lee, S. (2003). A Study of relationship on suicidal risk, self-esteem and TA ego function of high school girls. *J Korean Acad Psychiat Ment Health Nurs*, 12(2), 155-163.
- Lewinsohn, P. M., Rohde, P., & Seeley, J. R. (1994). Psychosocial risk factors for future adolescent suicide attempts. *J Consult Clin Psychol*, 62(2), 297-305.
-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2003). *A white paper of adolescent*.
-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4). *The Cause of death statistics*.
- Paloutzian, R. F., & Ellison, C. W. (1982). Loneliness, spiritual well-being and quality of life. In Peplau, L. A. & Periman, K. (Eds.), *Loneliness: a sourcebook of the theory, research and therapy* (pp. 224-237). A Wiley Interscience Publication John Wiley & Sons, New York, 1982.
- Winters, N. C., Myers, K., & Proud, L. (2002). Ten-year review of rating scales III: Scale assessing suicidality, cognitive style, and self-esteem. *J Am Acad of Child Adolesc Psychiatry*, 41(10), 1150-1181.
- Yim, M. W. (1998).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home environment and suicidal ideation of youth*. Unpublished master thesis, Myongji University, Seoul.
- Yoo, E. J. (2002). *A Study of the correlation among nurse presence, spiritual well-being and hope in patient with cancer*. Unpublished master thesis, Daegu Catholic University, Daegu.
- Yang, D. G. (2003). *Psychological dictionary*. Seoul: Hak-JiSa.
- Young, G., Rathge, R., Mullis, R., & Mullis, A. (1990). Adolescent stress and self-esteem. *Adolescence*, 25(98), 333-341.

- Abstract -

The Relationships among the Suicidal Risk, Self-Esteem, and Spiritual Well-being of High School Students

Kim, Yeongah* · Kwon, Young Sook**
Park, Kyung Min**

Purpose: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among suicidal risk, self-esteem, and spiritual well-being of high school students, and to provide basic data for developing suicide prevention programs. **Method:**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176 high school students from six academic high schools and two technical high schools in Daegu City. Data were collected from the 13th to the 25th of September 2004. The research tools were the Suicide Probability Scale developed by Go, Kim and Lee (2000), the Self-Esteem Inventory modified by Choi and Jeon (1993), and the tool of Spiritual Well-Being modified by Yoo (2002). Data were analyzed with SPSS Windows 11.0. **Result:** Variables that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suicidal risk were school type, whether to have the best friends, the number of close friends, current relationship with close friends, experience of school violation, respect for the teacher, grades, financial condition, parents marital status, father's education level, mother's education level, home atmosphere, conversation with father, conversation with mother, smoking, drinking, experience of counseling for problems, whether to have physical illnesses, experience of thinking about suicide, experience of attempting

* Full time lecturer, Department of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Pohang College

** 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Keimyung University

suicide. Suicidal risk was in a significantly negative correlation with self-esteem and spiritual well-being. **Conclusion:** The researcher identified many different variables that affect the suicidal risk of high school students. Self-esteem and spiritual well-being

were found to be in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suicidal risk. Therefore,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and information for suicidal prevention programs.

Key words : Suicide, Self concept, Spirituality